제3강 自然=퓌지스를 탐구하다 I

(1, 2교시)

퓌지스에 대한 사색들

최초의 철학자들은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또 정치적 부정의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의 질서, 영원한 자연을 찾았고, 그것이 자연/본성(physis)의 철학을 낳았다. 자연철학(natural philosophy). 이때의 자연은 대상으로서의 자연이 아니라 근원으로서의 자연이다.

밀레토스 학파는 훗날 '질료'라고 불리게 되는 것, 우주의 '원질(原質)'을 찾았다. 그로부터 물(탈레스), 아페이론(아낙시만드로스), 공기(아낙시메네스)라는 결론들을 이끌어내었다. 이오니아 지방에서의 질료 탐구와는 대조적으로 이탈리아 지방에서 흥기(興起)한 퓌타고라스(Pythagoras) 학파는 훗날 '형상(形相=idea/eidos=forma)'이라고 부르게 될 것, 그 중에서도 특히 '수(數)'를 사유의 중심에 놓았다. 같은 시대에 '수수께끼 같은 사람' 헤라클레이토스는 서구 전통 철학 내내 묻히게 될 운명을 가진, 그러나 몇 천 년 후 현대 철학에서 부활해 활짝 꽃피게 될 사유의 뇌관(雷管)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오니아 지방에서 흥기한 밀레토스 학파는 '근원/원리'를 찾았으며, 그들이 찾은 아르케는 주로 후대에 이르러 질료 또는 물질이라 불리게 된 것들이었다. 여기에는 환원주의, 동일성의 사유가 깃들어 있으며, 오랫동안 서구 사유를 지배했다.

탈레스(Thales)는 물에서 아르케를 찾았으며, 이것은 당대의 지리적 지식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아낙시만드로스(Anaximandros)는 물, 불, 공기, 흙 사이의 평형을 고려해 '아페이론(apeiron)' 개념을 제시하게 된다. 훗날 'indefinite'와 'infinite'로 분화되어 전개되게 되는 이 개념은 서구 철학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이다. (현대어의 'the indeterminate'에 해당.) 여기에는 '정의(正義)'에 대한 관심사도 깔려 있다.
아낙시메네스는 중간을 취해 공기를 이야기한다. → 구체와 추상의 문제.

www.artnstudy.com